

아이비키가와 강

아이비키가와 강은 야시마와 시코쿠를 가르는 5m 정도의 수로입니다. 야시마(야는 지붕, 시마는 섬, 즉 “지붕의 섬”)는 그 이름처럼 예전에는 세토 내해에 떠 있는 독립된 섬이었습니다. 배의 접근을 멀리까지 바라다볼 수 있어서 방어하기 쉬운 지형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장소로 중요시되었습니다. 또한 야시마는 아이비키가와 강으로 인해 동쪽의 고켄잔 산과 무레의 마을과도 격리되어 있었습니다. 1637년에 이루어진 매립 공사는 당시의 다카마쓰 번주 이코마 다카토시(1611~1659)가 새로운 농토를 개간하기 위해 명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야시마와 시코쿠를 연결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의 통치자였던 마쓰다이라 요리시게(1622~1695)는 야시마를 다시 본토에서 분리하기를 바랐기 때문에 이를 위해 1647년에 아이비키가와 강을 뚫았습니다.

아이비키가와 강의 동쪽 끝과 서쪽 끝은 모두 세토 내해와 접해 있습니다. 강이 되기 전에는 썰물 때가 되면 얕은 곳에 있던 물이 바다로 역류하면서 양방향으로 흘러 얕은 여울이 되었습니다. 이 현상에서 ‘아이비키’(서로 잡아당긴다는 뜻)라는 이름이 유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하구 부근 동쪽에 위치한 단노우라에서 벌어진 강력한 무사 가문인 다이라 가문과 미나모토 가문의 ‘야시마 전투’(1185년)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 설에서 말하는 ‘서로 잡아당기다=아이비키’란 어느 쪽도 양보하지 않는 힘든 전투를 뜻합니다. 현재 강에는 자동개폐식 타이드 게이트(방조 수문)가 설치되어 있어 흐름이 바다에 의해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지에는 ‘아이비키가와 강은 몇 걸음 만에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농담이 있습니다.